

# “구글클라우드가 인재양성센터 제안”

### 강기정 시장, 美 출장 브리핑...세계 기업, 광주 AI생태계 조성 관심 “AI영재고·조선대·전남대 등 광주서 AI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광주시가 빅데이터를 갖춘 인공지능(AI) 집적 단지를 앞세워 구글클라우드, 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들과 미래 산업 발전을 공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2023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참관, 실리콘밸리 방문 등 미국 출장에서 구글과 엔비디아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며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 데이터센터를 그 배경으로 거론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광주시가 민선 7기부터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잘 추진하고, 2단계 사업 예산까지 반영해 씨앗을 뿌려놓았다”면서 “결국 데이터가 힘이고, 빅데이터가 전부인 상황에서 광주는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에너지, 원천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미국 CES)환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현지에서 광주를 크게 여기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구글클라우드 측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에서 광주시 방문단에 인재 양성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투자 금액 등도 밝혀왔다”면서 “세부 협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일본 책임자가 광주시 관계자를 구글 코리아 캠퍼스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구글 측의 환대는 생각지도 못한 성과”라면서 “(인재 양성센터가 설립되면) 개교 추진 중인 AI 영재고, 조선대와 NHN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전남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 허브 등과 함께 광주에서 AI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시장이 또 독립형(외장) 그래픽처리장치(GPU)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엔비디아로부터

디지털 트윈(가상 모형) 협력사업 제안도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세계적 기업들의 제안과 협의 내용 등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할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강 시장은 이번 CES 방문 성과로 구글-엔비디아와 협력 논의를 포함해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을 통한 CES 첫 참여, 반도체 바이오센서 기업 솔과 투자협약, 광주 공동브랜드 기업 벤텍프린터의 연간 1000만달러 수출 계약, 글로벌 e스포츠 전문 채널 ESTV와 업무협약을 제시했다.

강 시장이 이끈 CES광주방문단의 이 같은 활약 덕분에 CES참가 3500여개(한국 560개·광주 9개 기업) 기업-기관 중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관련 뉴스기사 주요 키워드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실제 삼정 KPMG 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3 CES 관련 뉴스 보도 주요 기관 및 키워드 분석에서 광주시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과 광주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행사에 앞서 강기정광주시장,이병훈 시장위원장 및 국회의원, 시의원, 5개구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문주기자mjna@kwangju.co.kr

## 가뭄 위기 극복·복합쇼핑몰 유치 국가 지원 협력

### 민주광주시당, 제1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군공항 이전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6일 제1차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가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 확보, 국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광주시민을 위한 민생정책 강화를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자체, 의회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당정 간 정책의제를 위해 진행되는 당규에 규정된 정기적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광주시당 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 소속 국회의원, 기

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장단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AI영재고등학교 설립 및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무등산 정상개방 추진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국가지원 ▲지역요양원 처우 개선 및 노동권 증진 방안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및 의료특구 활성화 방안 ▲우리밀산업 현황 및 소비촉진 방안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 등 9개 지역현안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 유치의 경우 첫째 영세상인과의 상생방안, 둘째 복합쇼핑몰이 광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셋째 광주경제의 규모를 키우

는 방안 등 3대 원칙을 정하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적극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AI영재고등학교 설립과 광주 미래먹거리를 선도할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의 경우 민주당 소속 지역국회의원과 광주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대 새병원 건립과 관련, 우수 인력 양성과 지역 환자의 역외유출 방지, 미래형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특구를 완성하기 위한 논의를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법인 시설보다 개인신고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광주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 개정 논의 등을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

# “상반기 지방산단 조성 마무리 경제교육문화특구 변신 목표”

### 김병내 남구청장 신년 인터뷰

“올해 광주 남구는 사람과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1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새해부터 남구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광주 남구를 이끌고 있는 김 청장은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 이행평가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공약 이행에 충실해 ‘빨은 말은 지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 청장은 주민들에게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불리고 있다. 김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이유로 구청 7층에 있던 구청장실과 주민행복담당관 사무실을 1층으로 옮겼고, 매일 1~2차례씩 동 행정복지센터로 출근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원인들의 접근이 쉽고 빠른 민원처리로 ‘행복민원실’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행정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지역민, 민원인이다”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문화특구였던 남구를 올해는 경제를 더한 경제교육문화로 바꾸겠다는 것도 김 청장의 목표다.

김 청장은 “남구의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에너지 밸리 지방산단 2곳이 광주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국가산단의 경우 이미 완공된 상태인데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산단 조성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많은 고용효과가 유발돼 교육특구 도시였던 남구가 명실상부한 경제교육특구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올해 연말까지 백운광장을 사람과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백운광장에는 현재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남구청 정문 앞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 ‘미디어 월’이 설치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97억원



의 예산을 투입해 백운광장의 공중보행로 ‘푸른길 브릿지’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 청장은 남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관내 전통 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올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통해 2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또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비 9600만원을 투입해 이자 차액 보존율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에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해 오는 4월과 8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주민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주시면 어떤 난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면서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올해도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전남도 ‘5·18 커뮤니티센터’ 조성

### 기념사업 구심점...2026년 완공 목표

전남도가 16일 도청 정철실에서 ‘5·18 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5·18 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 지역 5·18단체 대표와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전남도 5·18기념사업 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전남 5·18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서 커뮤니티센터를 우선 조성해 전남지역에 산재한 5·18 문헌, 고증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교육·문화 공연 등의 거점 공간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

부에 5·18 기념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5·18 커뮤니티 센터 조성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이번 용역으로 5·18 기념공간 마련 청사진이 제시됐다”며 “전남 5·18 민중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5·18단체 및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착수보고회 이후 3차례의 수시 간담회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종보고회에서 기념공간 조성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공간계획, 구성 콘텐츠, 운영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중

이방인  
이기원이 쓴

#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